

전주 제1·2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전환 본격화

내년부터 통합관제센터·산업단지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4개 사업 2027년까지 추진

노후화된 전주 제1·2일반산업단지가 높은 생산성과 고효율 에너지, 친환경 제조 환경 등을 고루 갖춘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전주 제1·2일반산업단지(이하 전주 제1·2산단)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이하 스마트그린산단)로 전환하는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스마트그린산단’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등을 디지털화하고,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올해 신규 포함된 전주 제1·2산단을 포함한 전국 21개 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됐다.

사업이 확정돼 내년부터 추진될 주요 사업은 △통합관제센터 구축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스마트 제조

인력 양성 △산업단지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의 4개 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국비 24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88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산단의 안전과 환경, 교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능형 CCTV와 IoT(사물인터넷) 환경 센서 등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며,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사업’은 산단의 물류 최적화 및 입주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또 ‘스마트 제조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 교육훈련 및 보급 확산을 위해 특화 업종별 실습 인프라를 구축해 신규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재직자들에 대해서는 최신

제조기술을 교육하게 된다.

여기에 입주기업들의 에너지 데이터를 연결하고 공유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절감을 도모하는 ‘산업단지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사업’도 추진된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법률에 따라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이 내년 1월 팔복동에 위치한 전주혁신창업허브 창업동에 차려질 예정으로, 오는 2029년까지 약 5년간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969년 국내 세 번째로 조성된 노후 산단인 전주 제1산단과 지난 1987년 준공돼 40년 가까이 경과한 전주 제2산단의 근로 환경

개선 및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전주 제1·2산단을 포함한 전주시역 5개 산단이 ‘2025년 노후 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공모사업에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중 거점 산단인 전주 제1·2산단을 지난 6월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종성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주 제1·2산단의 스마트그린산단 지정은 노후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환경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하여 전주는 향후 고도화된 스마트 산업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안전운전인증 ‘최우수’ 등급 획득 기념 촬영

이지콜, 안전운전인증 ‘최우수’

전주시설공단, 안전운전인증제 도입 첫해 최고 점수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운전인증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안전운전인증은 운전원별 운행 안전 진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그 성과를 도로교통공단이 진단하고 심의해 교통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공단은 안전운전인증제 도입 첫해에 최고 점수를 받았다.

공단은 올해 4월 도로교통공단 전북특별자치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특히 △운행안전진단 △운전행동성향검사 △안전운전교육 △안전운전심화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이

지콜 운전원 전원을 대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지콜’의 교통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안전운전인증의 유효 기간은 3년이고 공단은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이지콜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특장 콜택시 63대와 전용 임차 택시 25대, 순환버스 4대를 운영하며, 11월 말 기준 올해 총 26만여 명이 이지콜을 이용했다.

이연상 이사장은 “안전운전인증제의 도입이 교통안전문화 향상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게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노사문화 발전 위한 ‘화합 한마당’

지난 5월 사고 부상자·노·사 관계자 등 참석 소통의 장 열려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노·사와 정·정이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와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는 3일 소각장 홍보관에서 전주시, 지역 정치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과 함께 ‘리싸이클링타운 노사문화 발전을 위한 화합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화합 한마당은 노·사·정·당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상생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발생한 리싸이클링 사고의 부상자들과 복직된 노동자들,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황정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사측 대표인 고광태 성우건설 대표이사, 노조 대표인 이창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어진 화합 한마당 행사는 식전 행사에

이어 ‘화합, 융화, 소통’을 주제로 한 레크리에이션 등이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노사문화 발전 및 지역 상생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앞서 시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전북본부, 성우건설 등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4개 운영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주시역 국회의원, 전주시의회는 지난 10월 28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해직자 복직 타결에 따른 이행 합의문 및 전수형 상생 노사문화 지지문 서명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사측 대표인 고광태 성우건설 대표이사, 노조 대표인 이창석 본부장은 지난 9월 11일 발표된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공공합의문’을 토대로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해직자 전원 복직 타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와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는 3일 소각장 홍보관에서 전주시, 지역 정치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과 함께 ‘리싸이클링타운 노사문화 발전을 위한 화합 한마당’을 개최했다.

결에 따른 합의문을 발표했으며, 이 합의문에 따라 해직됐던 노동자 11명이 지난 11월 1일부터 복직해 근무 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오늘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건

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노사문화 정착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경찰, ‘횡령·배임 의혹’ 선유도 집라인 전 위탁운영자 수사 착수

경찰이 공금 유용 및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군산시 선유도 집라인 전 위탁운영업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전북경찰청은 군산시 선유도 집라인 위탁운영을 맡았던 어촌계장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군산의 한 시민단

체와 어촌계원들은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어촌계원 동의

없이 차용증을 적어 6억원의 공금을 유용하고, 인건비 1억3000여만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해당 고소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뉴스

함순진·김복남 부부, 농사지는 쌀 100포 기탁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에 거주하는 함순진·김복남 부부는 3일 평화2동 주민센터(동장 이은혜)를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직접 농사지는 쌀 100포(300만원 상당)를 기부하였다.

함순진·김복남 부부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세대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기부하게 되었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혜 평화2동장은 “매년 잊지 않고 쌀을 기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겨울이 시작되면서 추운 날씨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관내 저소득층



세대에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순진·김복남 부부는 2019년부터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직접 농사지는 쌀을 후원해왔으며, 매년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